

# 장애인과 일터

Vol.341

2023 SEPTEMBER  
KEAD Monthly Magazine

## 반짝반짝, 감수성 깨우기



##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SEP, Vol.341

### 반짝반짝, 감수성 깨우기

처서(處暑)를 지나 여름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청명한 하늘은 한 뼘쯤 높아졌고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도 가을의 시작을 느끼게 합니다. 계절의 영향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결 차분해지고 쉬이 감성모드가 되기도 하지요. 9월에는 가을을 맞아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많이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목표는 하나, 함께 금빛 레이스 펼칠 겁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같이 뜻을 세우고, 함께 길을 열어갑니다.”
- 20 **우리는 KEAD**  
“대기업 제안이나 바느질이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 24 **KEAD 포커스**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28 **세계는 지금**  
독일, 장애인고용 의무고용제도를 선도하다



##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반짝반짝, 감수성 깨우기
- 04 **생각 더하기**  
인생과 예술의 길이를 다시 재다
- 06 **공감 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수어의 역사 알아보기
- 10 **일터 트렌드**  
도서향균관리원



##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로코노미’ 들어보셨나요?
- 34 **배리어프리 여행**  
매력적인 공업도시, 울산여행
- 36 **컬처 플러스**  
다큐멘터리 ‘스피드 큐브의 천재들’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톨**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정신장애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 반짝반짝, 감수성 깨우기

### 문화예술로 나만의 감수성을 깨우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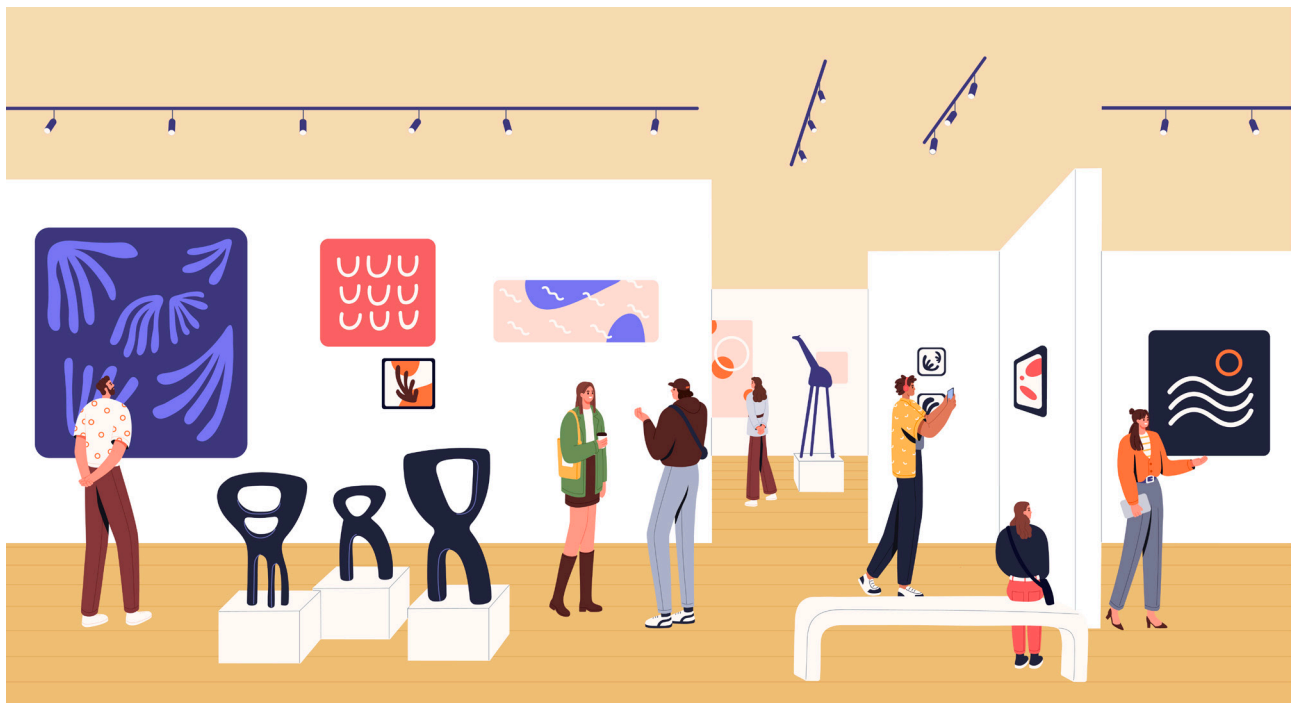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해왔습니다. 때때로 숨이 턱턱 막히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은 언제나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는 작은 통로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때로는 위로와 감동을, 때로는 즐거움과 신선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지요.

출·퇴근 길에 나의 감성을 깨우는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주말에는 일상에 쫓겨 미처 챙겨볼 수 없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랫말을 흥얼거리기도 하지요. 배우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형성되는 연극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는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고, 보다 긍정적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어느덧 하늘은 높아지고 선선한 바람이 컷불을 간질이는 계절입니다. 자꾸만 감성이 말랑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지지 않는지요.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문화 감수성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대형 공연장에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감상해도 좋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 편을 읽어도 좋겠습니다. 이도 아니면 전시회에서 멍하니 그림을 보며 나만의 감성에 푹 빠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이번 9월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반짝반짝하고 말랑말랑한 감수성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 인생과 예술의 길이를 다시 재다

## 장애예술인이 원하는 것

글.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고대 그리스 시대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했다. 이 명제가 아직도 유효할까? 그 유명한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장애 속에서 800여 점의 유화를 그렸지만, 살아있을 때는 단 1점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고 사후에 이름이 알려졌다. 척추장애인 프랑스 화가 툴루즈 로트렉의 ‘세탁부’는 2005년 미술작품 경매에서 당시 최고가인 232억 원으로 판매되었다.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명제가 공감을 얻었지만, 오늘날 예술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술을 소비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의 취향이 사회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예술가 입장에서는 죽은 사후에 유명해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작품이 팔려서 당장에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특히 판매에 고전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은 오늘 당장에 발목을 잡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되기를 더욱더 바라고 있다.

### 전업작가를 희망하는 장애예술인을 도울 방안 시급

장애예술(Disability Art)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예술이며, 예술 행위를 하는 장애인은 장애예술인이라 불린다. 장애예술인에게 예술은 사회적 활동이자 장애예술을 업(業)으로 삼아 소득을 얻는 직업활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예술인의 예술 행위가 사회적인 차별로 직업적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활동 참여 횟수는 연 4회로,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예술활동의 기회가 적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 가구 수입은 2020년 3,215만 원으로 2019년 기준 연평균 장애인가구 수입 4,246만 원의 75.7%에 지나지 않는다.

가구 수입 중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은 연 218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6.8%에 불과하다.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월 18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다.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바라며

물론,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마련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의 미술품을 구매해 장식하고 장애예술인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여 관람하며, 장애 문인이 집필한 도서를 구입해 비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의무적인 구매는 향후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매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판로가 개척되고 장애예술인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이어진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은 놀라울 만큼 발전할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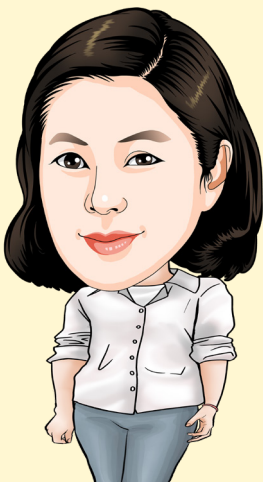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술은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이 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예술이 장애예술이라면 위안과 기쁨에 희망과 용기를 더해줄 것이다. 다시금 장애예술은 인생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장애예술인이 가진 장애라는 서사가 인생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예술에 대한 길이 즉 가치는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두드려요, 나의 감수성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예술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림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 등 작품 속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감동하기도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을 터.  
이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조운경 고용개발원장  
공단 고용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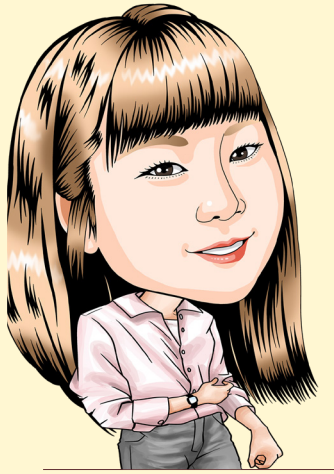
“

문화예술은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지요

고용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선도하는 R&D 연구기관인 고용개발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저만의 산책코스가 있는데요, 주말 아침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입니다. 이곳은 너무 혼잡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막하지도 않은 산책길이어서 저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창의적인 사고로 이끌어 줍니다. 이외에도 시간이 되면 미술관을 종종 방문합니다. 익숙한 작품을 낯설게 보게 될 때, 새로운 해석을 접하게 될 때 신선한 시각으로 다가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또한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쌍둥이 언니로 등장했던 정은혜 그림작가의 역할이었어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이를 최루성이 아니라 담백하게 그리려고 노력한 점이었어요. 무엇보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마음껏 행복하라’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는 공통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은 언어·인종·장애·비장애·성별을 넘어서 보편적인 연대로 가는 기반이 되는 것이겠지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린 과장**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

“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배리어프리가 확대되길 바라요!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공시와 각종 회의, 현장경영, 행사 등 경영진의 리더십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저는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20분 정도 혼자만의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다 보니, 저만의 감수성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편입니다. 일하면서 쏟은 에너지가 충전되고 저녁 시간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선 헤이더 감독의 영화 ‘코다(CODA)’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노래하는 것이 꿈인 주인공 루비가 청각장애인 아버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의 목에 손을 대고 마음으로 노래를 듣는 장면에서 장애와 상관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장애인권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부원이 계셨는데 저희끼리 모여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영화 장면을 설명해드리면서 함께 감상했지요. 최근에 음성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제작되고 있지만, 여전히 작품이나 제공 횟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도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의 역할이고 추가로 청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방, 시설물 관리, 공사 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집돌이로 집에서 영상매체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주 감수성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마 ‘거울 뉴런 효과’로 인한 공감 능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효과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있기만 해도, 또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자신이 행동하는 것처럼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처럼 작품 속 등장 인물에게 공감하면서 감수성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성 장애인의 성향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작품입니다. 자폐성 장애라고 하면 섬세한 공감 능력의 부재인데, 주인공 ‘우영우’가 비장애인이 보기에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죠. 갑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고래 지식 이야기, 엉뚱한 자기소개 등으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영우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다양한 상황 연출을 통해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문화예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해주니까요.



**최병규 안전관리자**  
대전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

작품 속 등장 인물을 통해  
공감과 감수성을 얻고 있습니다

## 수어의 역사 알아보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수어는 수화언어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음성 대신 손의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적 신호를 이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 언어다. 손가락이나 팔로 그리는 모양, 그 위치나 이동, 표정과 입술의 움직임 등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수어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편집부



###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전한 ‘한국수어’

수어의 시작은 이렇다. 농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연스럽게 손짓으로 표현한 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농교육을 도입한 인물은 미국 의료선교사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R.S Hall)’이다. 홀 여사는 1909년 평양맹아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인 이익민 교장과 그의 조카를 중국 최초의 농학교인 체후농학교에서 연수를 하게 한 후 농교육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이익민과 그의 조카가 수어 교육의 중심이 되어 학교를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농아동들이 수어를 배우기 위해 집단으로 모여 생활하고, 서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한국수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13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제생원(현 서울농학교)’에서 일본수어를 사용했으며, 강



습회에서 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1935년에는 이창호 목사가 평양에 개교한 ‘평양광명맹아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1943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이 입술의 움직임과 표정으로 이해하고, 발성 연습을 통해 음성언어를 습득하는 교육법인 구화법으로 지도했다. 이를 계기로 1962년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농학교에서 수화법을 지양하고, 구화법으로 사용하도록 교육 방법을 정하였다. 1963년 서울농아학교(현 서울농학교)에서 ‘수화 교본’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1982년 서울농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농학교, 대구영화학교 등은 국내 최초의 ‘표준수화사전’을 만들었으며, 1991년 교육부에서는 ‘한글식 표준 수화’를 발행했다.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부터 한국수어표준화를 비롯해 한국수어연구와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2005년 ‘한국수화사전’을 출판하고 2007년에는 개정판을 발간했다. 2013년 국립국어원은 수어 연구에 획기적인 ‘한국수어 코퍼스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토론과 수어그림, 영상을 보고 표현하는 수어 동작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분석하는 연구였다.

###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법’

2016년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수어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 ‘한국수어의 날(2월 3일)’도 제정됐다. 한글날(10월 9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해서 공식적인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은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기념행사를 치룬다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1년 KBS1 <다큐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는 뮤직 다큐멘터리 ‘농인 셋 청인 하나, 우당탕탕 좌충우돌 10년 분투기’를 공개했다. 주인공들의 대화와 퍼포먼스를 수어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수어 뮤직비디오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얻었다. 또한, 올해 신한은행은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카페인 ‘카페스윗’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했다. 카페스윗은 신한은행 본점 1층과 15층, 서울대입구점, 정릉점 등 총 6개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6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선착순 천 명에게 한국수어의 날 설명 스티커가 부착된 커피 드립백을 제공하기도 했다.

서대문도서관은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짓사랑’과 서대문도서관 1층 로비에서 수어 체험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한국수어의 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수어를 체험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의사소통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중 하나의 소통 방법인 한국수어 또한, 농인들과 한국수어 사용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사소통 수단이다. 우리는 한국수어의 날이 제정되기까지의 여러 사람들의 수 많은 노력을 기억하고, 그 노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나라 수어가 융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도서향균관리원 세균 걱정 없는 안전한 도서관을 만든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는 사람들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서관 이용자들은 같은 책을 대여해 읽기 때문. 도서관은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필수이다. 공단은 이를 눈여겨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향균관리원’이라는 직무를 개발했다.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직무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부

\* 2022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 소독과 방역 필수인 도서관에서 일자리 창출

2023년 현재, 코로나19는 엔데믹(풍토병, endemic)으로 전환됐지만 국민의 안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일상 속 방역은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도서관이 보유한 책자 및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엔데믹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이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도서관 환경의 박테리아 및 곰팡이 오염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도서관 책의 내외부에는 상당량의 박테리아와 곰팡이 병원균이 존재하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및 피부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공단은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1년부터 이러한 상황을 눈여겨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착수했다. 근래 4~5년간 지식정보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꾸준히 건립되는 상황인 것도 관련 일자리 개발에 확신을 가지게 했다.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2023년까지 도서관 1,468개소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사서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력 충원이 도서관 확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공공도서관의 도서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한 도서관당 하루 평균 303권이 대출되고 있어 대출과 반납 전후 도서를 소독하는 일이 하나의 신직무로서 가능성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에 공단은 시설 유지를 위한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에 적극 나섰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직군이 바로 ‘도서향균관리원’이다.





## 취업 취약층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군

도서향균관리원은 도서관 또는 자료실에서 책 소독기와 소독용 티슈를 이용해 반납 전후의 책과 비품을 소독·항균하는 직무이다. 특히 취업 취약층인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로 개발되었는데, 이들의 고용률은 지면에서 여러 번 다뤄졌듯이 타 장애인구 고용률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도 했다.

발달장애인은 변화가 적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강점이 있다. 공단은 이점에 착안하여 발달장애인과 도서향균관리원을 매치한 것이다. 또 2012년 공단에서 개발한 사서 보조 직무개발로 이미 여러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어 도서관 직원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큰 장점이었다.

공단은 도서향균관리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해 공단 소속기관(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충북지사, 전북지사)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컨설팅을 시작했다. 특히 전북지사에 제안서를 제시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전주시청과 연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규직 일자리 채용을 유도했다. 이후 면접을 진행했고 네 명의 합격자가 뽑혔으며, 이들을 위한 직무훈련과 사회화 훈련 과정을 운영했다.

## 21명의 발달장애인, 채용의 벽을 넘어서다

훈련 과정은 이랬다. 먼저 발달장애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서 소독에 대한 ‘쉬운 직무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객응대 능력을 키우고 근로 작업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중심의 훈련이었다.

전체 훈련시간은 전공교과 102시간, 소양교과 36시간으로 총 138시간이었는데,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얻도록 도서관 유사하게 만들어진 교육현장에서 진행됐다. 훈련생이 근무하게 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그 덕이었을까. 한 명의 발달장애인이 전주시청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되는 성과를 냈다. 전주시청은 2019년부터 지자체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 보조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이력이 있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은 공단은 발달장애인 채용의 벽을 한번 더 넘기 위해 참여기관 추가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 도서향균관리원이 아닌 ‘북-키퍼’라는 직무명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 센터에서 양성한 열여덟 명의 발달장애인이 북-키퍼 직무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13개 도서관에 채용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서도 두 명의 발달장애인이 도서향균관리원으로 취업에 성공해 총 스물한 명이 같은 직군으로 채용되는 쾌거를 낳았다.

이로써 도서향균관리원은 책과 자료를 다루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사례로 검증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당당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산업군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표는 하나, 함께 금빛 레이스 펼칠 겁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단

네트 위를 가르며 서를콕을 따라 선수들의 손과 눈이 바쁘다. 상체를 뒤로 힘껏 젖혔다가 반동으로 서를콕을 쳐내곤 바퀴를 역방향으로 굴러 재빨리 이동하는 선수들은 이미 휠체어와 한 몸이다. 올해 3월 창단 후, 숨 가쁘게 달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단. 그 구슬땀 가득한 연습 현장에 함께했다.

글 편집부 / 사진 김덕창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단원들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신인 선수들의 반란

라켓에 셔틀콕이 정타로 맞을 때마다 체육관이 찌렁찌렁 울린다. 혼합복식 연습경기를 진행하면서 독려의 기합, 아쉬움의 탄성이 오간다. 그러다가도 서브 직전 숨죽이는 찰나, 네 선수의 눈빛이 가장 날카롭게 빛난다. 지금은 짧게는 10월 말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길게는 2024 파리 패럴림픽을 향해 숨을 고르며 선수들이 가장 날카롭게 버려지는 시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초의 휠체어 배드민턴팀으로 지난 4월에 창단식을 거행했다. 총 4명의 선수로 구성된 선수단은 창단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등급별 1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영입된 팀이기 때문이다. 여자 단식 1위를 각각 거머쥔 권현아, 정겨울 선수와 남자 단식 1위의 유수영 선수, 이들이 있기에 미래 휠체어 배드민턴계의 주도권을 거머쥘 날이 머지않았다고 심재열 감독은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내일이 기대되는 선수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요. 게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선수로서 안정된 일과 삶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오롯이 배드민턴에 정진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권현아 선수, 유수영 선수, 정겨울 선수는 지역은 다르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 선수 육성 사업’을 통해 4년 전부터 함께한 사이다. 심재열 감독이 휠체어 배드민턴 전임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서 운영했던 신인 육성 사업에 세 선수가 함께했고, 진기범 선수는 신인선수 선발을 통해 합류했다. 손발을 맞춰온 사이에다가 개인 기량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의 선수들은 올해 거침없이 국제대회 도장 깨기를 해나가는 중이다.

## 휠체어 배드민턴의 매력과 묘미

장애인 배드민턴은 일반 배드민턴과는 다른 룰이 적용된다. 큰 구분으로는 ‘휠체어 배드민턴’, ‘스탠딩 배드민턴’, ‘좌식 배드민턴’으로 나뉜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결정되는데 선수단은 모두 휠체어 배드민턴 종목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휠체어 부문 안에서도 WH1, WH2 두 등급으로 나뉘 경기가 치러진다. WH1은 양하지 완전 마비, 뚜렷한 강직 등 장애가 심한 휠체어 선수들, WH2는 한쪽 혹은 양하지 마비, 심각한 강직 등의 비교적 경한 휠체어 선수들이 출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단은 성별, 등급, 레벨이 다양한 4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경쟁력 부분에서도 한걸음 더 나아간 상태다. 권현아 선수와 진기범 선수가 WH1 등급이고 유수영 선수와 정겨울 선수가 WH2 등급으로 각 등급에 맞게 남자 혹은 여자 복식, 혼합 복식으로 구성해서 대회를 나가고 있다.

개별의 기량도 남다르지만 복식조에서의 기량은 배가 된다. 날렵함과 유연성을 두루 갖춘 유수영 선수, 독보적인 파워를 가진 권현아 선수, 섬세한 플레이를 펼치는 정겨울 선수, 미래가 유망한 왼손잡이 진기범 선수의 영입은 심재열 감독의 큰 그림에서 결정됐다.

“각 선수의 장점이 뚜렷한 팀이에요. 반면에 보완해야 할 단점도 뚜렷해, 그걸 극복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죠. 이 선수들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파리 패럴림픽까지

올해 창단했지만 선수단에게 가장 바쁘고 긴장되는 해가 올해다. 내년에 있을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 자격 획득을 위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때문. 올해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파리 패럴림픽 출전 포인트 획득을 위한 대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단은 2월부터 6개의 국제대회에 나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지난 경기들에 아쉬움이 많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모두 목에 걸고 돌아왔지만 금메달은 아직 거머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재열 감독은 선수들이 느끼는 아쉬움에 공감한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분명 쉽게 얻은 결과는 아니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회를 끝내고 돌아와 풀에 죽어 있지 않고 매 경기를 복기하곤 합니다. 각 경기에서 선수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넘어섰다면 이를 교훈 삼아 바로 훈련으로 보강해요. 이 경험들이 쌓이면 금메달에 가닿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수들의 일상은 훈련 후 대회 출전,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생활이 루틴처럼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가 진행된 이틀 전인 8월 중순, 영국에서 귀국한 선수들의 일상은 10월 말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한 훈련으로 점철된다. 지칠 법도 하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품고 있기에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동의 목표는 바로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좋은 팀을 창단해 주신 만큼, 또 성원해 주시는 장애인분들에게,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개개인을 위해서도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휠체어 배드민턴 선배이자 팀의 감독으로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으로 가는 또 하나의 티켓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10월 16일 출국하는 선수단. 그들이 흘린 값진 땀이 당장의 금빛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휠체어 배드민턴계의 중심을 잡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열렬히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일이 아닐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들

미니 인터뷰

"큰언니, 큰누나로서 중심 잡아야죠."  
- 권현아 선수



16년도에 정립회관에 갔다가 만난 심재열 감독님 덕분에 오늘날 까지 휠체어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디자인 일을 했었는데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로 전향하면서 '나는 이걸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소속된 만큼, 장애인분들을 대표한다는 사명감도 왠지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뛰어넘는 노력으로 올해도 내년도 좋은 성과를 보이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승부욕은 저의 원동력이자 힘이에요."  
- 유수영 선수



경기에 지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편입니다.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껏 치열하고 우직하게 걸어왔는데 올해와 내년,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꽃필 수 있는 시기가 열렬히 달려 나가는 중입니다. 일단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내년 파리 패럴림픽에 나가서 제 이름과 대한민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무조건 열심히 할 겁니다.

"배드민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요."  
- 정겨울 선수



초등학생 때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제게 공부 시키려고 하셨어요. 전 좀 활동적인 사람이라 휠체어 배드민턴에 정진하게 되면서 선수가 되었고요. 지금은 기량도 펼치고, 선수로서 경제활동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갑니다. 아직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임상을 꼭 해서 돌아오고 싶어요.

"끈기 있게 성장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 진기범 선수



장애를 갖기 전엔 합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휠체어 배드민턴을 접했고, 본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을 대상이 배드민턴이라 좋고, 코트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가장 경력이 짧은 만큼 팀 선수들에게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어요. 저는 5년 뒤 아시안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팀 이름에 걸맞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같이 뜻을 세우고, 함께 길을 열어갑니다.”

## (주)휴먼티에스에스, 보안업계에서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하다

삼성에스원이 삼성전자 사업장 보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주)휴먼티에스에스가 보안업계에 장애인 일자리 초록 신호등을 켜다.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주)휴먼티에스에스를 찾았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미소를 머금고 있는 (주)휴먼티에스에스 최한수 주임과 차은경 매니저, 공단 유은경 차장(왼쪽부터)





## 보안업계, 장애인 일자리를 고민하다

(주)휴먼티에스에스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2010년 3월, 직원 700명으로 창립해 현재 총 2,600여 명이 근무하는 전문기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안업계는 그동안 남성 가운데서도 청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로 장애인 고용에는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도체 육성산업 확산 등 보안 전문기업의 확장이 불가피해지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고민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그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주)휴먼티에스에스다.

(주)휴먼티에스에스의 초기 장애인고용은 주로 보안을 담당하는 임직원의 관사 관리에서 시작했다. 청소 등 단순 노동이 주 업무였지만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전사 차원의 긍정적인 인식이 생겨난 계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원 기숙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고용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주)휴먼티에스에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렸고 보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 구직에서 안정적 직무 적응까지 함께하다

처음 개발한 직무는 '행정 매니저'.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던 차였다. 이후 '채용 매니저'와 '홍보 매니저'까지 직무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그렇다면 채용 매니저와 홍보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홍보 매니저가 주요 채널을 통해 (주)휴먼티에스에서의 사업과 기업문화를 알린다면 채용 매니저는 보안 업계의 주요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보안업계에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기에, 구직자가 보안업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서 채용 상담, 취업 컨설팅, 면접에서 직무 적응까지 전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채용 플랫폼을 통해 공고를 올리는 일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직무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공단의 장애인고용 전문컨설팅을 통해 직장 생활을 경험한 시니어 장애인을 채용한 데서 얻은 수확이었다. 취업과 직장생활 전반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채용 매니저들은 때로는 면접에 탈락한 구직자를 다시 상담해 취업 성공의 길로 이끌기도 한다. 채용된 취업자가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또한 채용 매니저의 몫이다. '내 가족 같아서' 한 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조언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인사담당자의 중간 소통을 도맡아온 덕분에 지금까지 수많은 구직자들이 (주)휴먼티에스에스의 안정적 일원이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구직자들이 채용 매니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취업한 후에 알게 된다는 점이다.

주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구직에서 취업까지 꼼꼼하게 상담해 주고 길을 인도해

준 채용 매니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구직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장애인 인식에 새로운 전환을 갖기도 한다.

### 장애 인식 개선까지, 일거양득

이렇듯 (주)휴먼티에스에스의 홍보, 채용, 행정 매니저는 보안 분야의 ‘인적자원관리사’라는 장애 맞춤형 신직무를 안정적으로 개발해 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직무 개발에서 근무 환경 컨설팅까지 기업이 효율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근무 환경의 위기도 오히려 기회가 됐다. 재택을 활용한 스마트 워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주)휴먼티에스에스는 올해 장년층을 포함해 총 21명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다. 취업한 근로자는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근무 형태와 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고령장애인 채용에도 적극적이다. 오랜 세월 직장 생활 경험으로 얻은 지혜와 연륜이 (주)휴먼티에스에스의 취업 시스템과 맞물리며 좋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무를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주)휴먼티에스에스에 입사한 한 근로자는 채용 매니저를 삶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취업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곁에서 인도해 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입사할 수 있었다는 고마움이 담긴 말이다. 그런가 하면 (주)휴먼티에스에스의 매니저들은 고마움을 인사팀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건넨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깊게 살피고, 무엇보다 매니저들의 조언과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준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직무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주)휴먼티에스에스를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한다. 장애인 채용이라는 뜻 앞에서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간 (주)휴먼티에스에스의 한 발 앞선 걸음에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차은경 매니저



차은경 매니저가 최한수 주임과 공단 유은경 차장과 업무 상의를 하는 모습

### 미니 인터뷰



차은경 매니저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인 많은 구직자의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휴먼티에스에서의 1기 채용 매니저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구직 사이트를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막상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원자들이 적었어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금 한 마음도 들었는데, 인사 담당자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차 업무를 익히며 적극적으로 온라인 구직자들을 찾아가 상담하기도 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원자들을 독려하며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휴먼티에스에서의 많은 매니저가 각자의 분야에서 그동안 쌓은 역량과 노하우로 말은 뭇보다 더 잘 해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회사의 든든한 지지와 믿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취업의 문턱에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한수 주임

**"회사와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고용을 추구합니다."**

아직도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망설이지 말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는 기업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겪고 있는 업무의 무게를 충분히 덜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저마다의 분야에서 충분히 역량을 쌓고 있고, 또 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과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리면 생각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몫은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시너지를 키우고, 서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마 그 고민 끝에서 얻어낸 해답은 분명 기업에 새로운 전환점과 역량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유은경 차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일자리는 존재하지요. 이런 기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 전문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사업체 맞춤형 직무를 개발해 언제든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더불어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역시 나이나 장애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공단을 방문해 주세요. 각자의 특성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고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누군가 장애인의 일자리에 어떤 것들이 있냐고 묻는다면, 비장애인이 하는 모든 일을 장애인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만큼 장애인 일자리의 폭은 넓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업 제안이나 바느질이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 고용컨설팅부 대기업전담팀 이기송 팀장, 박보영 과장, 신성식 과장

가죽에 가이드라인 선을 긋고, 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다. 구멍과 구멍 사이를 바늘이 통과하며 모두를 엮고 잇는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장애인과 대기업 사이를 오가면서 유대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여기며, 서툰 바느질 솜씨로 명함 지갑을 진득하게 만든 한 팀의 이야기를 담았다. 때로는 점으로,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면이 되어 큰 그림을 그리고 설득하고 끝내 벽을 허무는 그들의 업무와 닮고, 달아 있는 ‘중꺾마’의 시간이었다.

글 편집부 / 사진 김덕창



명함 카드지갑을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은 신성식 과장, 이기송 팀장, 박보영 과장(왼쪽부터)

## 저희가 또 시작하면 제대로 하거든요

고용컨설팅부 대기업전담팀의 이기송 팀장, 박보영 과장, 신성식 과장은 미리 재단된 명함지갑 도안을 각자 만 지작거린다. 이 팀장과 박 과장은 밝은 카키색의 털그린 색상의 가죽을, 신 과장은 무게감 있는 에토프 색상의 가죽을 미리 골라놓은 터였다. “조금 있다가 각자 명함지갑이 될 가죽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먼저 가장자리 부분에서 2mm 안쪽에 바느질 가이드라인이 될 선을 그려볼게요.” 공방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 사람은 짐짓 놀란 눈치였다.

“바느질을 해야 한다고요?”

두려움과 얼떨떨함이 서린 눈빛들이 오갔다. 선 위에 포크처럼 생긴 그리프를 대고 바느질 구멍을 10개씩 뚫으면서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들이었다. ‘나는 재봉틀이 있는 줄 알았지’, ‘오늘 안에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색의 실 중에서 가죽과 어울리는 색을 골라 자리로 돌아왔다. 이 팀장은 털그린과 어울리는 짙은 라임색 실을, 박 과장은 그보다 더 연한 녹색을, 신 과장은 에토프와 어울리는 밝은 실을 골랐다. 실에 왁스를 먹이고 양쪽 끝에 바늘을 하나씩 달아 새들스티치 할 준비를 완료했다. 마치 대업을 앞에 둔 사람들처럼 크게 숨을 쉬고 각자 집도를 시작했다. 당혹감에 머리를 긁적이던 손을 부지런히 놀리기까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저희가 또 시작하면 제대로 하거든요.”

뭐든 제대로 하는 팀인 대기업전담팀은 올해 2월에 조직된 신생팀이다. 23년 근속의 베테랑 이기송 팀장을 필두로, 공단의 핵심인 박보영 과장, 제너럴리스트인 신성식 과장이 든든한 양 날개가 되었다. 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을 전담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컨설팅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다. 이 팀장은 팀이 조직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시작했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 저는 이게 공단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기업전담팀은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대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기존에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수행하시던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몰입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라고 만들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 기업을 공략하듯이 한 땀 한 땀 정진!

바느질 시간은 전체 공예 작업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력을 요하는 작업. 구멍에 두 개의 바늘을 교차시키며 내구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기도 하다. 처음엔 바늘구멍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얼굴을 했던 세 사람은 어느새 “나 어찌면 바느질에 소질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며 점차 속도를 올렸다. 한 땀 한 땀 기업을 공략하던 사람들답게 바느질하는 손놀림도 눈빛도 날카롭고 뚝심이 엿보였다. 바느질에 공들이는 시간, 자연스레 최근에 공들여 보람을 느꼈던 업무들에 대해서 썰이 풀린다. 박보영 과장은 1년간의 컨설팅 끝에 게임회사에 발달장애

인 첼로 앙상블 연주단을 창단한 사례를 예로 들며 아침마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일하는 한 시간이 온전히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라면 이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게 가끔 아득한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리고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제가 들인 시간이 결국엔 스스로나 장애인분들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기송 팀장은 보험업 최초로 장애인 3.1% 의무고용을 달성한 기업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업체 담당자와 끈 끈한 파트너십으로 1년만에 이룬 성과이고, 무엇보다 바리스타와 사서보조 등의 직무로 취업된 장애인들이 좋은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63빌딩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의 인기가 아주 높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다 뿌듯한 마음이에요.”

신성식 과장은 철용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힘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단순히 연결할 수 있는 직무가 없거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경영진 의지 부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 건 만들고 깎 건 깎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막막할 때는 법의 제약 때문에 대기업도 저희도 길을 잃을 때예요. 올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으로 그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 같아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선은 바늘 끝에 가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이 주먹거리는 고갯짓에서 업무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점과 점을 잇는 선, 선 위에 바느질하는 손들, 그리고 바느질이 이은 면들이 결국은 입체적인 명함지갑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은 묘하게 업무와 닿아 있는 부분들을 포착해낸다.

### 장애인고용에 길 잃은 대기업, 우리에게 오라!

“다했다!!!” 박 과장이 제일 먼저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 뒤로 이 팀장과 신 과장이 순서대로 바느질 결승 지점을 통과한다. 여러 면을 붙여 만든 가죽지갑의 외곽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옛지코트를 바르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바느질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다음 작업을 수월히 해낸 세 사람. 베이스 코트가 마르는 시간 동안 신 과장이 진리의 말을 내뱉는다. “우린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일엔 끝이 있다. 하하’”

너털웃음을 지어 보이는 세 사람은 완성된 명함지갑을 손 위에 두고 감상 시간을 가졌다. “아 그럼 우리 인터뷰의 타이틀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장애인 고용에 길 잃은 대기업, 우리에게 오라!’” 이 팀장이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한 마디 하자, ‘우리 팀장님 감성 터지셨네’ 하는 팀원들의 개구진 감상이 이어진다. 투덜투덜하다가도 몰입하면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 호락호락하지 않을 대기업 인사팀을 상대로 진심의 제안을 건네는 사람들로 체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만도 50개의 대기업에 컨설팅을 제안하는 대기업전담팀. 그들이 뿌린 씨앗이 든든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타성에 쉬이 져지 않고 업무에 열정적인 이 팀장과 뛰어난 감각으로 반짝이는 기획을 제안하는 박 과장, 높은 감수성으로 공감력을 이끌어내는 섬세한 신 과장의 조합은 그야말로 완벽하니까.



### 🎧 체험 소감 한마디



이기송 팀장

"기업에 다가갔던 한걸음과 비슷했던 바느질이었어요."

올해로 23년 차 직장인이지만 제겐 '엄마'라는 타이틀도 있잖아요. 딸과도 이런 시간을 마련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함지갑이나 가족가방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을 때, 손잡고 와서 취향에 맞게 골라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요. '세상에 쉬운 일 없지?'라고 말해주기도 하고요(웃음). 앞으로 우리 팀이 열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도를 잃지 않고 정확한 길을 가는 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 식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오롯이 아내를 위해서 썼어요."

사실 아내에게 선물할 명함지갑이었어요. 가족색도 아내가 골라준 거거든요. 잘 만들어 오라고(웃음). 그래서인지 바느질이 잘못되면 다시 풀어서 돌아가고, 돌아가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인 시간이 오롯이 보이는 명함지갑이라 아내가 들고 다니면 엄청 뿌듯할 것 같습니다. 가족 공예가 저희가 대기업에 다가갔던 한 걸음 한 걸음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힘든 제안이 있을 때마다 이 바느질을 생각해왔어요. 언젠간 결실을 맺을 거니까! 라고요.



박보영 과장

"포기하지 않은 나를 기억하고 싶어요."

솔직히 바느질이 쉽지 않아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는데 결국 완주했습니다. 업무에서도 선호하는 업무가 있는 반면 어렵게 느껴지는 업무들이 있는데 결국엔 끝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팀을 통해서 지사에서도 만나기 어렵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고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식 과장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 기수단의 모습

##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애를 넘어 내일의 꿈을 향해 도전하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닳아간다’라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역시 이 대회를 오랫동안 그리며 꿈꿔왔을 것이다. 참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겨룰 이번 대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부



###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50여 명 참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2023 Beautiful Challenge 경북’이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했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참가해 전산응용기계제도(CAD), CNC선반 등 정규직종 19개, 시범직종 14개,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9개 등 총 42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세부적인 개최 직종은 아래와 같다.

**정규(19개)**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전자기기, CNC 선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수리, 웹 마스터,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뇌병변중증), 시각디자인, 전자출판, 점역교정(시각중증), 가구제작, 목공예, 귀금속공예, 나전칠기, 양복, 양장, 한복, 화훼장식

**시범(14개)** CNC밀링, 메카트로닉스, 옥내제어, PCB설계, 3D프린팅, 자전거조립, 모바일앱개발, Word Processor, 영상콘텐츠 제작, 캐릭터 디자인, 건축제도CAD, 안마(시각중증), 바리스타, 제과제빵(발달)

**레저 및 생활 기능경기(9개)** 그림, 네일아트, 도자기, 한지공예, e-스포츠, 기기조립(발달), 데이터입력(발달), 봉제(발달), 바리스타(발달)

### 지역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기능축제의 장

이번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기존의 대회와는 확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와의 공동 주최로, 장애인 기능인력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축제로서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기능경기뿐 아니라 지역맞춤형 문화탐방, 부대행사 문화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기능축제의 장(場)으로 더욱 특별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각 지역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포부도 남다르다. 기능경기대회 수상으로 취업을 꿈꾸는 선수, 지역을 넘어 전국 으뜸을 꿈꾸는 선수,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수 등 각자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과 특전도 주어진다. 정규직종 입상자에게 금상 1,200만 원, 은상 800만 원, 동상 4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시범직종 입상자에게는 금상 600만 원, 은상 400만 원, 동상 200만 원,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입상자에게는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6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입상자에게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sup>1)</sup>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sup>2)</sup>에 참가 자격도 함께 주어진다. 이번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능력을 키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게 되길 응원하며,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통해 더 행복하고 더욱 희망찬 일상을 꾸려가길 기원한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의 모습(번역)

1)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직종: 가구제작, 귀금속공예 포함 23개 직종

2) 개최국 사정에 따라 국제대회 개최 직종에 한함

## 〈주요 행사〉

### 개회식

- 일 시 : 2023. 9. 19.(화) 16:0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500여 명(선수 및 선수단 임원 400명, 내빈 및 대회관계자 등 100명)
- 내 빈 : 고용노동부 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장애인계 대표 등
- 행사내용 : 시·도 선수단 입장, 대회사, 치사, 환영사, 선수 선서 등

### 기능경기

- 일 자 : 2023. 9. 20.(수) ~ 9. 21.(목)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 1층 전시장
- 개최직종 · 참가선수 : 42개 직종 447명(예정)

### 폐회식

- 일 시 : 2023. 9. 22.(금) 11:0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500여 명(선수 및 선수단 임원 400명, 내빈 및 대회관계자 등 100명)

### 부대행사

- 일 자 : 2023. 9. 20.(수) ~ 9. 21.(목)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로비, 전시 및 시연회 등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의 모습(점역교정)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의 모습(제과제빵)



## 독일, 장애인고용 의무고용제도를 선도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일을 더욱 주목하는 이유

현대사회에서 장애인고용 정책의 꽃은 단연코 ‘의무고용제도(Quota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105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한다. 지금부터 의무고용제도의 본고장, 독일의 장애인고용 역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독일 뷔르템부르크 지역 슈바베슈 할에 있는 ‘소넨호프’ 장애인작업장



### 독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독특한 성장 배경

1914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18년에 패전을 선언했다. 이듬해 독일은 부상으로 장애를 가진 패전국 패잔병의 생계를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고안했다. 이는 보훈적 일자리 대책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독일의 장애 판정은 ‘원호청(국가보훈처, Versorgungsamt)’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줄곧 16인 이상의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적용해오다, 2001년이 되어서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소폭 축소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한 장애인고용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의무고용 기준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부터 4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40인 이상부터 60인 미만 사업장은 2명을 고용해야 한다. 60인 이상부터는 민간기관 5%, 연방정부 기관은 6%이다. 2021년 현재 독일의 민간기관 장애인고용률은 의무율 5%에 못 미치지만, 평균 4.1%이며 연방정부 기관은 의무율 6%를 넘어선 상태다.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부담금(Ausgleichsabgabe)’을 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60인 이상 고용된 사업체가 장애인을 3%~5% 사이에서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부족한 인원 1인당 월 125유로(17만 원)를, 2%~3% 사이에서 고용했다면 월 220유로(32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2%도 채우지 못한 사업체는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월 320유로(46만 원)이고, 2024년부터 760유로(1백 5만 원)를 납부해야 하므로 대폭 상향했다. 이렇게 징수되는 연간 조정부담금은 약 7억 유로(원화 1조)에 가까운 금액이다. 꽤 세세한 징수체계를 갖춰서인지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성과는 적지 않다.

###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

독일은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높다. 의무고용제도 취지가 중증장애인<sup>1)</sup>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다른 국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비해 훨씬 높다.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53.3%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경증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6%이다. 단순히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코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전역에 우리나라의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통합회사 919

1) 독일의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사회법전 제9권 제2조에 따라 장애 정도(GdB)가 50 이상의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 정도의 판단은 2009년부터 시행된 연방원호법의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다. 장애의 존부 및 정도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원호청(국가보훈처, Versorgungsamt)에서 확정한다. 수치로 명시된 장애 정도는 20 이상부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개사에서 중증장애인 약 1만 3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과 유사한 ‘장애인 작업장 (WfbM: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688개 회사에 있는 2,764개 사업장에서 약 31만 7천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한다.<sup>2)</sup> 이 중 2만 6천여 명은 보호 고용영역에 있는 훈련생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성과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진심이라는 것이다. ‘직업훈련 없는 장애인고용은 없다’라고 할 만큼 장애인고용을 위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장애, 비장애를 떠나 독일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직업기술을 배우는 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직업교육에 관한 한 독일은 가히 세계 최고이다. 우리나라 고도의 산업화를 이끈 직업훈련기관 역시 독일에서 그대로 배워온 제도인 것만 봐도 독일이 얼마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열심히 교육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은 ‘일과 훈련 병행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용에 이르지 못하면 보호 고용(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머물도록 한다. 물론 직무역량이 높아진다면 장애인작업장 또는 일반사업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 남부 ‘게셔(Gescher)’에 있는 ‘하우스 할(House hall)’ 장애인공동체에 무려 1천 5백 여명의 장애인이 훈련과 고용을 병행하며 독일의 장애인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독일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새로운 고민거리

2018년, 독일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완 독립적 참여 상담센터(EUTB)’를 500여 개소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직업재활, 의료재활, 직장생활 지원 등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 50개 지역에 있는 ‘직업훈련원(Berufsbildungswerk)’ 250개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어가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훈련하는 발달장애인 청소년과 청년은 1천 5백여 명에 달한다. 이렇듯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며 개정을 거듭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연방자폐증협회(Autismus Deutschland e.v)와 협력하여 전국 30개소에 자폐성 장애인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설치했다. 2019년부터는 연방자폐증협회에서 ‘자폐성 장애인 친화적 직업훈련원’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직업훈련원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처럼 독일은 강력한 의무고용제도 기반 위에 장애인고용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끊임없이 장애인고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자타공인 장애인고용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2) 독일의 ‘장애인작업장’ <https://www.bagwfbm.de/publications>

다. 하지만 100년 전통을 가진 세계 최고 장애인고용정책 선진 국가, 독일이 위기에 빠졌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장애인고용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는 독일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2016년, 그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이미 독일은 제조업 기술 강국 탈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융합이 대세가 되어 기존의 산업과 경제 구조, 사회적 관습 등이 크게 변화할 것<sup>3)</sup>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2011년 독일은 ‘산업 4.0(Industrie 4.0)’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산업영역을 발전시켰다. 이어 ‘노동 4.0(Arbeit 4.0)’을 통해 변화될 노동시장을 대비해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고용 해결책을 찾아서

현재 독일의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범단지를 운영했다. 이어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두 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산업적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 4.0 프로젝트 어디에도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고용, 직업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주관하고 있는 노동 4.0에도 장애인고용, 직업교육,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책이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내 많은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노동 4.0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장애인고용이 감소, 축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일종의 정부 정책 마스터플랜(BLUE PRINT)이자, 백서(WHITE PAPERS)에 가까운 산업 4.0과 노동 4.0에 장애인고용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즉 정부 주도의 국가경영에 익숙한 독일로서는 매우 위기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 상황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한 의무고용제도를 고안했다. 탈산업화 사회, 정보 디지털 사회를 넘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위기 또한 가장 먼저 간파하고 있다. 얼핏 장애인고용의 위기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부심 넘치는 선도적 면모를 살려 곧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고용’이라는 해법도, 새로운 이정표도 역시 이들을 통해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3)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 이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 ‘로코노미’ 들어보셨나요? ‘로컬’이 힙한 MZ세대 소비법

전북 익산시 인화동 하나로마트 앞은 새벽 3시부터 ‘생크림 찹쌀떡’을 사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떡’은 중장년층에게 더 인기 있는 음식이지만 익산 ‘떡켓팅(떡+티켓팅)’ 참가자는 MZ세대가 대부분이다. 익산 하나로마트는 오전 8시 30분 개장과 함께 그날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적어 공지하기에 ‘켓 통과’에 실패한 이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 MZ세대가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유다. 이렇게 팔려나간 생크림 찹쌀떡이 자그만치 70만여 개라는데,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글 강나경 자유기고가



### 지역 이름이 붙어야 불티나게 팔린다!

식품·외식업계에 ‘로코노미’ 열풍이 뜨겁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를 합친 말로 지역 기반 소비 경제 활동을 뜻한다. 실제로 ‘남해 마늘 바사삭(굽네치킨)’, ‘옥천 단호박 라떼(스타벅스)’, ‘창녕 갈릭

버거(맥도날드), ‘해남 녹차 빼빼로(롯데제과)’ 등이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로코노미 먹을거리가 인기를 끌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에 국내 여행이 늘어나면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다. 시장 조사 업체 엠브레 인에서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 특산물을 먹어 봐야 한다’는 응답이 91.5%에 달했다. 특히 MZ세대에서 로코노미 식품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로코노미 식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85.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로코노미는 ‘제주 감귤’, ‘보성 녹차’ 같은 스타급 특산품이 아니라 그동안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농산물에도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전국 대과 가운데 40%를 생산하는 전남 진도군이 대표 사례다. 대과는 요리에 들어가는 ‘부재료’ 이미지가 강해 마케팅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진도군 농수산물통산업단 관계자는 “진도 대과를 홍보하려 대과 축제도 열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봤을 뿐”이었다면서 “CU 편의점과 진도 대과 불고기 (삼각)김밥 시리즈를 내놓은 뒤로 농민들도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말했다.

### 팜 스테이, 지역과 가까이 더 가까이

이뿐만이 아니다. 로코노미와 함께라면 ‘못난이 농산물’도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 롯데마트는 장마철 비바람에 떨어져 표면에 흠집이 입거나 모양이 찌그러진 오이를 정상 제품의 반값에 판매하는 ‘B+급 오이’ 행사를 열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농가는 물건을 팔아서 좋고 소비자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어 모두 만족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힘입어 롯데마트의 상생 농산물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늘었다.

로코노미가 ‘지역 밖으로’만 추구하는 건 아니다. 지역산 먹을거리가 사랑받으면 지역에 대한 친근감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농협은 전국 3백여 곳에 ‘팜 스테이(Farm Stay)’ 마을을 운영하면서 도시 사람들을 ‘지역 안으로’ 유도하고 있다. 팜 스테이는 각 지역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로코노미 앞에 ‘하이퍼(Hyper)’라는 표현까지 붙는다. 로컬을 넘어 ‘동네 생활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하이퍼 로코노미’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한 상거래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이었다. 당근마켓에서 ‘당근’이 ‘당신 근처’라는 뜻인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를 계기로 최근에는 물건뿐 아니라 재능을 동네 주민에게 파는 플랫폼까지 등장했다.

21세기를 흔히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로컬을 떠난 적이 없다. 글로벌은 우리에게 ‘개인’이 될 것을 강요하지만 사람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지역과 지역이 균형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원시인도 서로 자기 동네에서 많이 나는 물건들을 주고받으며 살았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윈윈인 로코노미 트렌드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이유다.



## 매력적인 공업도시, 울산여행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기다

울산은 자동차·석유화학·조선 산업의 메카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공업도시로 성장했다. 도시의 비약적 성장은 경제 부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울산의 젓줄인 태화강이 죽어가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태화강 되살리며 새로운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중이다.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울산으로 떠나보자.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멋진 공간을 제공하는 대왕암공원. 대왕암공원 제공

###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 대왕암공원과 송림길

‘대왕암공원’은 신라시대 삼국통일을 이룩했던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하여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만 5천 그루의 해송, 바닷가를 따라 조화를 이루는 기암괴석, 파도가 바위구멍을 스치면 신비한 거문고 소리를 내는 슬도(瑟島)가 있다. 또한, 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울기등대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해양공원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해송 숲으로 둘러싸인 ‘송림길’은 돌길이라 조금 불편하지만, 전동휠체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이곳은 기암 괴석들과 바다를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나무데크로 만든 무장애길도 있다. 푸른 바다를 직접 내려다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특히 해송 숲이 그늘막이 되어주어 둘러보는 내내 시원하게 산책할 수 있고, 나무들이 만들어 내는 산뜻한 공기로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다만 대왕암 다리까지는 계단으로 되어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어려운 점이 아쉽다. 그러나 탁 트인 풍경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해송 숲길 중간과 공원 입구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장애인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관광 약자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 푸르른 대나무로 둘러싸인, 십리대숲길

‘십리대숲’은 대나무숲이 태화강을 따라 십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큰 홍수로 인해 태화 강변의 전답들이 소실되어 백사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때 한 일본인이 혈값에 백사장을 사들여 대숲을 조성하고 이후 주민들이 앞다투어 대나무를 심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는 주택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대숲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 후 잡목을 정리하고 친환경 호안과 산책로 조성작업을 통해 현재는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 됐다. 십리대숲길은 2017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누구나 방문하기에 좋은 여행지다.

### 오염된 강을 되살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길을 지나면 울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화강을 따라 조성된 국가정원이 펼쳐진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우리나라 12대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된 대표 도심공원이다. 2017년에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올랐으며 열린관광지로도 선정됐다.

이곳은 다양한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심하게 오염됐던 강을 되살리며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공간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하천 옆이라는 입지적 제약조건과 한계를 극복한 수변 생태정원이다. 이로써 다양한 수변 생태계를 구경할 수 있고, 계절마다 가지각색의 꽃이 만개해 울산 여행을 한다면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추천한다.

**이용안내**

- \* 대왕암공원 <https://daewangam.donggu.ulsan.kr/#>
- \* 태화강 국가정원&십리대숲 <https://www.ulsan.go.kr/s/garden/main.ulsan>
-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95
-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 \* 문의 : 052-209-3738
- \* 문의 : 052-229-3147~8
- \* 이용시간 : 연중무휴
- \* 이용시간 : 연중무휴

##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다큐멘터리 ‘스피드 큐브의 천재들’

누구나 한 번쯤은 알록달록 정육면체의 큐브를 만지작거리며 색깔 맞추기에 열중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둔한 사람이어서일까? 나는 단 한 번도 큐브 맞추기에 성공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큐브를 맞추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다. ‘스피드 큐브의 천재들’, 이 다큐멘터리가 나를 이끈 이유는 바로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글. 차미경 칼럼니스트



다큐멘터리 ‘스피드 큐브의 천재들’의 맥스 파크(왼쪽)와 펠릭스 쟈덱스(오른쪽)

### 천재 자폐인 ‘맥스 파크’의 우정과 성장 이야기

2년마다 열리는 WCA월드챔피언쉽은 스피드 큐브를 즐기는 전 세계 큐브 마니아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스피드 큐브 대회이다. 호주의 ‘펠릭스 쟈덱스’는 수년간, 이 대회를 평정해 온 최고 스피드 큐브의 강자. 그러나 펠릭스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챔피언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으니, 그는 바로 ‘맥스 파크’.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놀라운 속도로 펠릭스의 자리를 위협해 오는 무서운 라이벌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두 라이벌 펠릭스와 맥스의 순수한 경쟁과 우정, 그리고 성장을 담은 이야기다.

“또 천재 자폐인 이야기야?”

호주 챔피언 펠릭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다가 라이벌 맥스가 등장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이렇게 탄식할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동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재 자폐인 이야기를 우린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그런 이야기에 식상해지고 심지어 우려까지 느끼는 사람들에게 ‘맥스도 천재 자폐인?’이란 사실은 초반에 시청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맥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다 보면 단지 특출난 천재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물론 맥스가 큐브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천재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맥스에게 다양한 기회와 무엇보다 그를 성장시키는 좋은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는 과연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까.

두 살 때 자폐 진단을 받은 맥스, 엄마 미키 박 씨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혼자서만 노는 맥스의 모든 행동을 온종일 곁에서 따라 했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열 살 무렵 맥스가 집안에 굴러다니던 큐브에 관심을 보이자 혼자서 물병이라도 딸 수 있게 해 보자는 생각으로 소근육 발달을 위해 가르쳐 본 것이 큐브의 시작이었다.

### 편견 넘어 잠재력을 끌어내 주는 주변인이 필요

맥스가 처음으로 큐브를 완성하자 무작정 큐브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맥스가 큐브를 잘해서가 아니라 큐브를 통해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렇게 했다고 맥스 부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부모의 바람대로 맥스는 수많은 큐브 대회에 참가하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 무엇보다 맥스는 자신의 우상이면서 라이벌이자 롤모델이었던 펠릭스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성장을 했다. 그냥 “잠자기 전에 이 다투어”라는 부모의 말은 듣지 않아도 “펠릭스도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라고 하면 바로 들을 정도로 펠릭스는 맥스에게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런 펠릭스와의 경쟁과 우정을 통해 맥스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쿨하게 지는 법도 결국은 배우게 된다.

그것은 펠릭스도 마찬가지. 게임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맥스와 펠릭스가 보여준다. 맥스가 가진 특별함을 누군가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의 천재성은 끝내 발현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세상에 수많은 천재들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지도.

무엇보다 펠릭스라는 친구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맥스는 그저 고립된 자폐인으로 그쳤을지도 모른다. 맥스의 천재성이 아니라 다양한 도전의 기회, 그리고 진정한 관계와 소통의 경험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웅크리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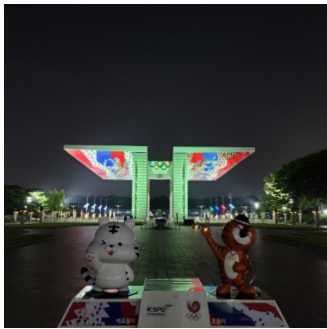


#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mailto: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달리기 #힐링 #건강

최근에 건강을 위해 달리를 시작했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주로 달리고 있는데, 매번 같은 코스를 달려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지를 따로 정한 건 아니고 몸이 가는대로 달리다 보니 도착한 올림픽 공원. 숨이 차는 와중에도 순간 눈에 들어온 평화의 문 덕분에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여름, 해질 무렵 저녁 산책을 추천합니다.

박○종 님



### #늦여름 #초가을 #구름조각

오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의 마지막에 찾아온 유독 파란 하늘입니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의 그 어딘가에서 선선한 가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계절, 예쁜 구름 찾기 놀이는 어떠신가요?

김○연 님



### #늦여름 #수영장 #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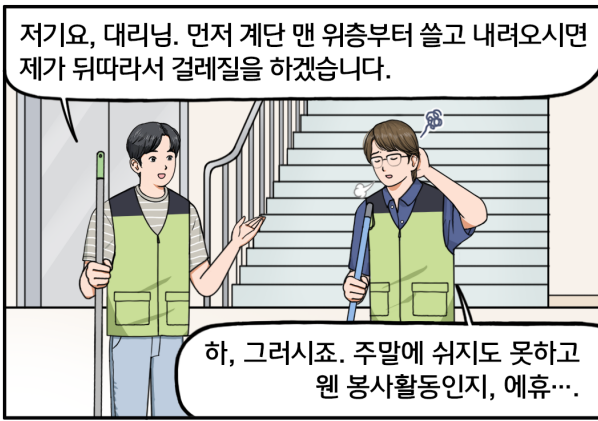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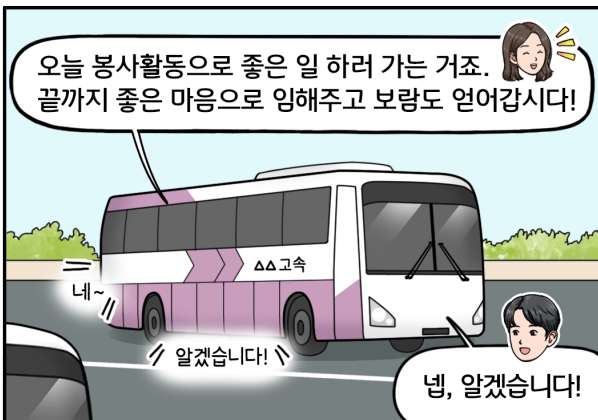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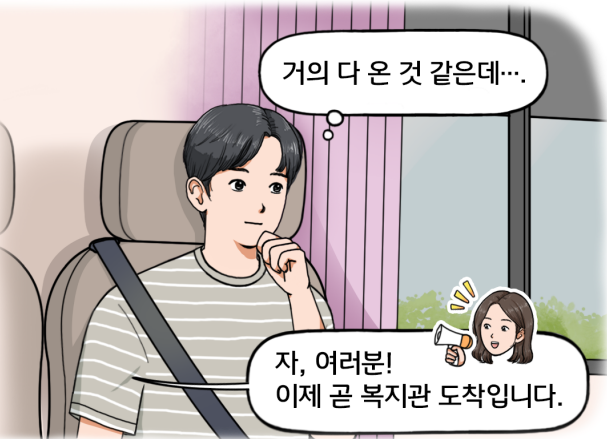
집 근처 공터에 간이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 제 더위마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더운 여름이지만 주위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쌓으며 더위를 이겨내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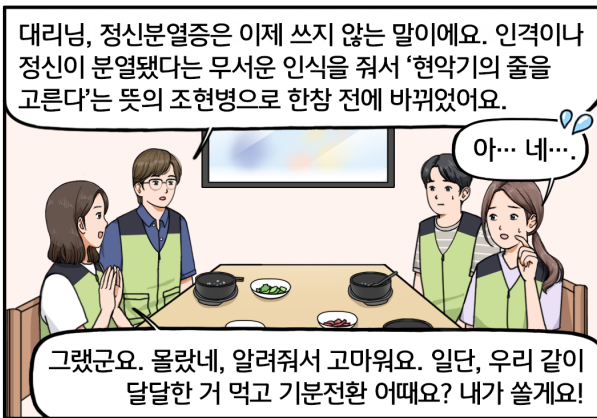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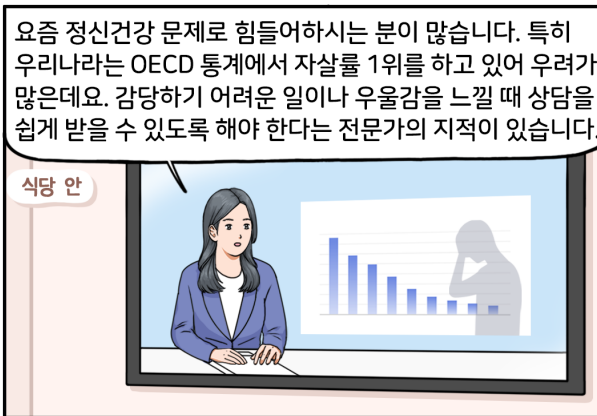
전○진 님

#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 정신장애 편

그림 권도연







# KEAD 뉴스

## 지구촌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고용의 인식을 높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단체가 모이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고용의 한류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난 8월 7일부터 개최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지구촌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 한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을 알렸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 도구와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80개국 2천여 명에게 소개했다. 이외에도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발달장애인 그림 등을 전시했으며 인식개선 영상도 상영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포괄 고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스테판 트로멜(Stefan Tromel) 국제노동기구(ILO) 수석장애전문관의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단 고용개발원 전영환 실장 등 4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IG넥스원(주)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해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돕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에 LIG넥스원(주) 김지찬 대표이사는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만큼이나 장애인 일자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장애인고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LIG넥스원(주)(대표이사, 김지찬)과 지난 8월 10일 LIG넥스원(주)의 판교하우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LIG넥스원(주)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모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LIG넥스원(주)은 자회사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대전과 판교, 용인, 구미 등에 카페, 베이커리 업종 관련 직무로 29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방R&D 전문기관이자 전 세계에 K-방산을 대표하는 LIG넥스원(주)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전국의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 요인을 파악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6천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의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해 장애인고용 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고용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동태적 기초통계 수집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 중이다.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EAD SNS 하이라이트

##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Instagram**

haha\_kead

**올인원! 장애인등록증으로 교통카드도 해결!**



좋아요 댓글 공유

**장애인등록증으로 교통카드도 해결**  
 올인원,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하다는 사실! 장애인등록증 시행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Instagram**

haha\_kead

**나를 알아서만 10기 장애인 평생교육, 주목해야 하는 이유**



좋아요 댓글 공유

**장애인 평생교육,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들의 정규교육격차 보완과 사회적응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내꿈내일기자단 박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YouTub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숨직 토크쇼! 백VS신 토론**

좋아요 싫어요 공유 오프라인저장 저장

**[백VS신] 토론, 장애인 이동권 시위 TALK**  
 장애에 대해 신나고 답하게 토론하는 '백VS신 토론' 첫 번째 주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N blog**


blog.naver.com/kead1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장애인 직무개발 사업 2탄**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장애인 직무개발 사업 2탄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개발 사업, 어떤 직무가 개발되었는지 함께 확인해봅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장애인 직무 개발 사업 2탄**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를 개발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